홍성흔 샌디에이고 루키팀 코치가 말하는 ML 육성시스템

“철저한 규율 속 매일 인성교육…훈련소 조교가 된 기분”

장은상의 여기는 애리조나

“선수들 행동부터 말투 하나하나 교육
코디네이터가 법…훈련 스케줄 주관
빅리그 부상선수 복귀 시스템 배울점”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메이저리그는 ‘선진야구’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곳이다. 선수, 산업, 인프라 등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역시 육성 시스템이다. 타고난 재능으로 단숨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선수들도 있지만, 시스템에 의해 ‘빚어지는’ 선수들 또한 적지 않다.

시즌 전에 열리는 스프링캠프는 메이저리그 육성 시스템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빅리거’들은 물론 마이너리그의 가장 아래 단계인 루키리그 선수들까지 모두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디좁아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구슬땀을 흘린다. 곁에서 이들을 지도하는 코치들 역시 마찬가지다.

1일(한국시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스프링캠프 시범경기가 열린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의 피오리아 스타디움에서는 모처럼 반가운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인턴코치로 샌디에이고에 입단해 정식코치 자리까지 오른 홍성흔(42) 코치였다. 홍 코치는 현재 샌디에이고 구단의 루키팀 코치로 재직 중이다. 루키 선수들의 스프링캠프가 애리조나에 차려져 홍 코치 역시 동행중이다. 육성시스템 최전방에 있는 홍 코치에게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정식코치, 더욱 더 무거워진 책임감

-정식코치로 스프링캠프에 합류한 기분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힘들다. 책임감도 더 생기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점도 많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졌지만, 그 만큼 코치로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소통하는 것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의사소통이라 하면 역시 영어인가.

“그렇다. 겨우내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여기서도 틈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다. 선수들을 지도할 때 ‘내가 조금 더 표현을 자세히 해주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인성이 첫 번째’, 군대와 같은 규율

-정식코치로 직접 참여한 미국의 스프링캠프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곳은 군대다. 나는 선수들을 훈육하는 훈련소 조교쯤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사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적어도 이 곳만큼은 철저한 규율 속에서 돌아간다. 선수들은 이른 오전부터 철저한 스케줄에 맞춰 생활한다.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를 교육 받으며 프로선수로서 키워진다.”

-철저한 스케줄의 예를 들어줄 수 있나.

“오전에는 주로 대부분 교육이 진행된다. 파트별로 강사가 모두 다른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강의를 한다. 의사소통, 인성, 정신교육, 법률 등 다양하다. 심지어 총기소지 금지에 대한 교육도 있다. 최근에는 SNS 사용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생겼다.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이 단발성이 아니라 매일 있다는 것이다.”

-매일?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나.

“인성이 첫 번째라는 것은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여기서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게 바로 이 곳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여러 코치들에 의해 세분화된 훈련 시스템

-훈련 시스템 역시 세분화 되어 있나.

“여기서는 훈육의 최고책임자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코디네이터의 주관아래 여러 코치들이 매일 매일 미팅을 통해 훈련 스케줄을 정한다. 타격, 주루, 수비, 체력 등 각기 정해져 있는 훈련들이 그 와중에 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여러 톱니바퀴가 돌아 하나의 큰 시스템을 돌리는 형태다.”

-코치들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겠다.

“맺고 끊는 게 칼 같다. 능력이 있으면 코치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바로 방출이다. 지난해에도 벌써 6명이 해고됐다. 내가 정식코치가 된 것도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기대치가 있다 보니 나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혹시 한국야구에도 꼭 도입했으면 하는 시스템이 있나?

“먼저 부상선수의 복귀시스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여기는 선수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준다. 선수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해도 아예 공도 못 만지게 한다.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조금 급한 감이 있다. 두 번째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타격 영상 촬영이다. 지금은 우리도 1군 선수들도 여러 카메라를 통해 충분히 자신의 타격자세를 돌려 볼 수 있다. 그러나 퓨처스 선수들은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여기는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구장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타격 자세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무엇이 잘못됐고, 또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더 수월하다.”

피오리아(미 애리조나 주)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홍성흔 코치는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루키팀 코치로 일하고 있다. 2017시즌이 끝나고 인턴코치에서 정식코치로 승격한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다. 1일(한국시간) 현지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난 홍성흔 코치. 피오리아(미 애리조나주) | 장은상 기자

“바이러스 옮길라” 클럽하우스 웃음바다 만든 추신수의 여유

무안타 개의치 않고 농담으로 분위기 업

추신수

야구를 대하는 ‘진지함’은 추신수(36·텍사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항상 무거운 분위기로 진지한 고민에 빠지는 게 추신수 특유의 캐릭터다.

1일(한국시간) 애리조나 글렌데일 캐멀백랜치에서 텍사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스프링캠프 시범경기가 열렸다. 2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당장 새롭게 도전하는 ‘레그킥’에 타이밍을 맞추려는 듯 아직은 자신이 생각하는 과정의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었다.

경기 후 만난 추신수는 “레그킥을 시작하자마자 시범경기 첫 주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며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 내내 특유의 진지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결과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애리조나의 저온현상에 관한 날씨 이야기가 나왔다. 애리조나는 평년에 비해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스프링캠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쌀쌀하다. 1일 등판 예정이었던 LA 다저스 류현진은 감기 증세로 등판이 취소되기도 했다.

류현진의 등판 불발 이야기를 전해들은 추신수는 “다저스 클럽하우스에 누가 바이러스를 보유했나 보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때 평소의 추신수에게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익살스러운 모습이 나왔다. 취재진 중에 다저스의 클럽하우스를 다녀온 기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추신수는 이들을 보며 모처럼 유쾌한 농담을 건넸다.

유니폼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저리 떨어지세요. 손은 씻고 여기 오셨나”라고 말해 클럽하우스를 즉각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평소의 추신수와 다른 모습에 옆에 있던 클럽하우스 매니저도 미소를 지었다.

타격폼 수정은 추신수 본인에게 있어 야구인생의 큰 도전이다. 당장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에게는 아직 유쾌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있다. 텍사스의 앤서니 아이어포시 타격코치가 한 말이 순간 떠올랐다. “걱정 하냐고? 그는 여전히 추신수다(He is still Shin-Soo Choo).”

글렌데일(미 애리조나주) | 장은상 기자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축구 〈1일〉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클래식) 1라운드 경기결과

전주W 전북 2 (0-0, 2-0) 0 울산 17,188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6	9	슈팅	2	7
3	2	오프사이드	0	1
9	8	파울	7	7
0	2	코너킥	0	3

▲골=이동국(후16분, 도움: 이재성), 한교원(후40분, 도움: 이동국, 이상 전북)

제주W 제주 0 (0-0, 0-0) 0 서울 4,979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3	9	슈팅	5	6
0	0	오프사이드	1	1
7	6	파울	11	7
1	2	코너킥	2	2

▲골=없음 ▲경고=권한진, 진성욱(이상 제주)

수원W 수원 1 (0-0, 1-2) 2 전남 8,456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6	4	슈팅	4	11
1	3	오프사이드	0	1
8	6	파울	8	7
1	3	코너킥	1	4

▲골=이기제(후39분, 도움: 염기훈, 수원), 완델손(후25분), 최재현(후45분, 도움: 완델손, 이상 전남) ▲경고=조원희(수원)

프로농구 〈1일〉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DB	49	35	14	0.714	0	1패
2	KCC	48	32	16	0.667	2.5	1승
3	모비스	48	31	17	0.646	3.5	7승
4	SK	48	30	18	0.625	4.5	1패
5	인삼공사	49	28	21	0.571	7	5승
6	전자랜드	50	27	23	0.540	8.5	3패
7	삼성	49	22	27	0.449	13	1승
8	LG	49	16	33	0.327	19	1패
9	오리온	48	14	34	0.292	20.5	1승
10	kt	48	8	40	0.167	26.5	2패

•경기결과

LG (16승33패)	75	28 47	18-20 10-21 25-29 22-18	41 47	88	현대모비스 (31승17패)
삼성 (22승27패)	71	33 38	14-15 19-17 22-22 16-15	32 37	69	전자랜드 (27승23패)
DB (35승14패)	73	35 38	16-24 19-19 21-19 17-16	43 35	78	KCC (32승16패)

여자프로농구 〈1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경기결과

삼성생명 (15승19패)	86	47 39	26-14 21-21 22-22 17-14	35 36	71	KDB생명 (4승29패)

프로배구 〈1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캐피탈	32	22	10	69	2794	2599	1승
2	삼성화재	33	21	12	58	3062	2996	1패
3	대한항공	33	21	12	57	3014	2872	2승
4	KB손해보험	33	17	16	49	2987	2985	1승
5	한국전력	33	15	18	47	2806	2908	1승
6	우리카드	33	11	22	37	2899	2989	7패
7	OK저축은행	33	8	25	28	2798	3011	1패

•경기결과

한국전력 (15승18패)	3	19-25 25-21 25-16 25-23	1	우리카드 (11승22패)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경기결과

인삼공사 (11승17패)	1	20-25 18-25 25-20 14-25	3	GS칼텍스 (13승15패)

주말 프로축구 예고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클래식) 1라운드

3일	포항	〈포항스틸야드〉	대구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강원	〈춘천송암〉	인천
	오후4시, SPOTV		
4일	경남	〈창원축구센터〉	상주
	오후2시, SPOTV2		

주말 프로배구 예고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2일	대한항공	〈인천계양〉	현대캐피탈
	오후7시, KBSN스포츠		
3일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삼성화재
	오후2시, KBSN스포츠		
4일	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우리카드
	오후2시, KBSN스포츠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3일	도로공사	〈김천실내〉	흥국생명
	오후4시, SBS스포츠		
4일	현대건설	〈수원체육관〉	인삼공사
	오후4시, SBS스포츠		

주말 프로농구 예고

•2017-2018 정관장 KBL

2일	SK	〈잠실학생〉	오리온
	오후7시, IB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kt	〈부산사직〉	인삼공사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3일	KCC	〈전주실내〉	전자랜드
	오후2시35분, KBS 1TV		
	삼성	〈잠실실내〉	현대모비스
	오후3시, IB스포츠		
	LG	〈창원실내〉	DB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4일	KCC	〈전주실내〉	오리온
	오후3시, MBC스포츠플러스		
	인삼공사	〈안양실내〉	현대모비스
	오후3시, IB스포츠		
	kt	〈부산사직〉	SK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주말 여자프로농구 예고

•2017-2018 신한은행 WKBL

2일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KEB하나
	오후7시, KBS W		
3일	KDB생명	〈구리시체육관〉	KB스타즈
	오후5시, KBSN스포츠		
4일	우리은행	〈아산이순신〉	신한은행
	오후5시, KBSN스포츠		